



ISSUE PAPER

BBC의 새로운 아동 채널 책임자 Joe Godwin

출처 : C21 Media (2010/06)

주요내용

최근 BBC의 아동채널 책임자로 임명된 Joe Godwin씨는 Media City와의 대담에서 BBC의 Putting Quality First Review와 앞으로 이 부서의 활동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내 놓고 있음

- Blue Peter의 제작자였던 Joe Gogwin씨는 지난 11월 BBC North의 최고운영자로 승진되어 떠난 Richard Deverell이 재직해 온 BBC 아동채널의 지휘권을 잡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Godwin씨는 영국의 아동채널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가 됨. 그리고 그동안 BBC의 명성이나 활약상등을 고려 해 볼 때 아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아동 분야 미디어 책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Nickelodeon UK에 5년 재직한 것을 제외하면 15년을 BBC에서 보낸 아동 미디어 분야의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Godwin씨는 BBC의 주요 디지털 네트워크 Damian Kavanagh가 담당하고 있는 CBBC와 Kay Benbow가 책임을 맡고 있는 Cbeebies를 총괄하여 이끌어 갈 것임.
- 영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아동 미디어 정책의 변화와 함께 아동채널의 질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BBC의 전략이 향후 아동채널의 흥미로움을 더할 것으로 예상됨.
- 모든 BBC의 아동부서가 영국의 북부 지방으로 내년에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2,500명의 멀티미디어 제작관련 직원들이 일 할 Media City로 알려진 방송 센터가 오픈하게 될 것임. Godwin씨는 "60년 런던서부 시절을 끝내고 북부지방으로 전 BBC 아동채널의 이동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

미 있는 것이며 지정학적으로 맨체스터는 영국의 심장이며 우리의 거기에서 우리가 가진 가치 창출을 잘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언급.

- 맨체스터에서 우리는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신기술 가지게 될 것이며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아동들을 위한 개성 있고 영감 있는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그는 덧붙임.
- 그는 계속해서 이번 이동은 방송사와 국민들 간의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둔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한발 짝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아동들이 런던의 BBC 본사에서는 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행동들을 맨체스터에서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이번 이동은 북부지방 시청자들로 좀더 국영방송인 BBC와 친근하게 할 뿐 아니라 지방의 독립사들의 성장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됨. 우리는 이미 북쪽회사들과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요크셔나 컴브리아와 같이 맨체스터 주변 지역에 비즈니스들과도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말함.
- 영국에서는 현재까지는 ITV의 지역방송사인 Granada가 독특한 사실 물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오고 있음. 사실 물들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영국 내 시청자들을 타겟으로 제작되었으며 런던이 아닌 지방에서 제작된 냄새가 많이 배어 나옴. 북부 indies에 대한 최근의 수주는 애니메이트 시트콤 Jinxed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편 지역의 애니메이터들은 BBC 시리즈 Model Earth 제작에 참여 하고 있음.
- 그러나 영국전역에서 indies에 대한 개방이 결코 제작하청사 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 분야는 WoCC (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에 의해 관리 될 것이며 누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든지에 관계 없이 최상의 아이디어가 수주 제작되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임. 지난 해 하청사들은 WoCC에 잘 협조하였음. 현재 시장 상황은 어려운 편이나 구조자체가 잘 짜여 있다. 하청사 제작물은 IP나 저작권 획득 차원 에서 BBC에게는 중요하다.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그래서 유연성있는 WoCC가 이것을 잘 대처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Godwin씨는 언급.
- 현재 아동채널을 비롯한 과반수의 BBC 톱 매니저들이 내년엔 북부로 이동할 것이며 Cbeebies에 새로 임명된 Benbow는 맨체스터로 이동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환상적 기회와 도전”을 위해 이동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Godwin씨는 언급하면서 현재 최상위 팀의 구성은 잘 조직되어 있으나 하위 그룹의 조직은 난황을 겪고 있다고 덧붙임.

-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동부문의 조직구성을 상세히 설명할 수 없으며 아직 진행 중이며 또한 향후 많은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주 긍정적인 예감이 든다고 언급함.
- Godwin씨의 BBC 아동 채널 전략은 아직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의장인 Mark Thompson씨의 Putting Quality First 리뷰에서 추천된 아동채널에 대한 천만 파운드 투자 계획으로 실질적인 힘을 얻게 됨. “세부사항을 알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콘텐츠의 이름도 아직 모르며 다만 나는 완벽한 실질물이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그는 말하면서 **실물 위주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영감을 부어 넣을 수 있으며 아동들이 다른 세계에 사는 아동들의 생활상을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임.**
- 또한 그는 재방송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를 원하며 특히 CBeebies는 시청자들이 재방송을 즐기고는 있지만 밸런스를 맞추는 면에서 어떤 조치는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Putting Quality First는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 Switch와 Blast의 종방을 추천하기도 함. 그러면 이것이 CBBC의 타깃연령대를 높이라는 뜻인가? 라고 Godwin씨는 의문을 제기함. 내가 이해하기로Putting Quality First 리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콘텐츠 삭감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며 재고를 해보라는 정도의 권유사항이라 알고 있다고 말함.
- CBBC는 6-9세 아동 층뿐만 아니라 10-15세 연령대 시청자들도 많이 보고 있으며 Radio 1과 같은 주요시간대 드라마도 종종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래서 잘 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어떤 프로그램이 ‘오직 청소년용’이라는 표제를 건다면 시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음.
- CBBC의 호러 역사물이 주요시청 시간대로 옮긴 이유도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서 기인함. CBBC는 게임쇼 Total Wipeout의 구성을 위해 이미 프라임 시간대의 프로그램들을 차용함.

- 또한 CBBC는 이사회에 종래 19.00시 이던 종방 시간을 21.00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이것은 연령대가 높은 CBBC 시청자들을 주위를 끌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아동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주목을 할 것이며 그들의 방송시청 습관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는 언급함.
- 나머지 다른 CBBC 프로그램 중 주력 프로그램 Newsround와 그가 제작을 맡아온 Blue Peter는 계속 지원을 할 것임. 이사회는 The Weakest Link과 같은 프로그램들의 시청 시간 이동으로 인한 시청률 하락으로 BBC를 질책함.
- Godwin씨는 시청률 하락은 여기저기에서 빈번히 이야기 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시청자들의 세분화 현상이 뚜렷할 때 우리는 일회성 폭발적인 시청률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의 의존을 지워버려야 할 것이라 경고함. 그는 이슈에 소재를 둔 장기 방영 드라마 Grange Hill의 종방 처리 결정 후 CBBC의 도전적인 드라마의 결핍에 대한 비난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라 주장함.
- 우리는 항상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는 드라마를 지향해 왔으며 새 시리즈 Tracey Beaker는 오락적이지 않으며 도전적인 드라마임, Grange Hill이 종방 된 후 도전적인 드라마는 여전히 많이 있으나 우리는 유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제작하고 싶다고 그는 언급함.
- CBeebies는 Benbowrk 새로이 사령탑을 맡게 되면서 현재까지 50%대 시청률 유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Godwin씨는 말하면서 CBeebies는 부모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뮤지컬 시리즈 Zingzillas는 현재 최고의 히트 프로그램이라 언급함.
- 그는 계속해서 CBBC와 CBeebies의 프로그램 다양화에 지속적인 도전을 할 것이며 다양화의 의미는 영국 내 모든 아동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정의함.
-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배우의 어려움을 가진 장애 아동들이 TV에 출연하는 것인데 CBeebies는 이미 세계적 채널이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고 싶다고 그는 말함.
- 영국의 아동 미디어들과 BBC는 수십 년 만에 설립된 연립정부의 출범으로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아직 새 정부의 어떠한 움직임에 대한 추측도 너무 이른 단계이며 우리의 우선 과제는 강력하며 독자

적 창조력을 가진 BBC를 구축하는 것이라 언급.

- 연립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점칠 수 없는 사항이며 민주당이 보수당보다는 BBC의 아동채널에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두 정당 모두 BBC 이사회에 대한 의혹을 표명한 바 있으나 향후 행방은 뚜껑을 열어 봐야 할 것이라 Godwin씨는 내다봄.